[UCI]I804:24011-200000231847

2007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조광조론: 개혁정치와 후대평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백 은 숙

조광조론: 개혁정치와 후대평가

A Study on the Theory on Jo Gwang-Jo: His Reformative Politics and Evaluation by Future Generations

2007년 2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백 은 숙

조광조론: 개혁정치와 후대평가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백 은 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19 2007-04-09

백은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진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2006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Ⅰ. 머리말 1

Ⅱ. 중종반정 직후의 정세와 조광조의 등장 3

Ⅲ. 정치개혁의 사상적 기반 11

1. 天人合一論 11

2. 君臣共治論 14

1) 君主修身論 15

2) 大臣責任論 19

3) 諫官役割論 21

Ⅳ. 정치개혁의 과제와 실천 25

1. 昭格署 革罷 27

2. 賢良科 實施 29

3. 靖國功臣 改正 31

Ⅴ. 정치개혁의 성격과 평가 34

Ⅵ. 맺음말 43

참고문헌 46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n Jo Gwang-Jo: His Reformative Politics and Evaluation by Future Generations

Eun-suk Baek

Advisor : Prof. Jong-bum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s Jo Gwang-Jo's reformative politics centering on the his thoughts which gave a basis of the reform and evaluation by coming generations.

Jeongam Jo Gwang-Jo dominated reformative politics to realize ideal politics presented by Yosoon while serving for the central political circles for such a short time under the reign period of King Jungjong (1515). He tried to realize ideal politics of Yosoon based on thoughts of Cheon-in-hap-il-lon, Gyeong and Inn, and Gun-shin-sang-jo-lon to deal with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disorder brought by Yeonsan-gun.

The Cheon-in-hap-il-lon means that contradiction of real society can be overcome if people try to recover their nature according to

the law of nature. The Gyeong and Inn is emphasized as a way to recover the nature. And the Gun-shin-sang-jo-lon means that a king should cultivate his mind consistently and servants should do their best for good operation of the court, and help Daegan to have the rights to speak freely for realization of ideal politics.

He believed that reformative politics based on the thoughts would be realized though the effects of utmost politics can not be achieved quickly and if there is something unreasonable, it should be reformed. And he suggested that opportunities should be caught for success of the reform. As a result, he dominated reformative politics through implementation of Hyeonranggwa, elimination of Sogyeokseo, and revision of political retainers.

He suggested Hyeonranggwa should be implemented in that utmost politics was not realized in the tenth year of King Jungjong and Sogyeokseo should be eliminated in that the principle of political ideology might be damaged. He insisted that the political retainers should be reorganized, focusing on differentiation between justice and private interest.

However, his reformative politics failed due to Kimyosahwa and he had a bad reputation for it.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King Jungjong changed his attitude and the vested rights tried to protect their power through bibliographical reviews of <Joseonwangjosilrok> and <Jeongamseonseangmunjip> and suggested that Jo Gwang-Jo pursued the utmost politics to deal with the political disorder at that time rather than he was a violent idealist.

Ⅰ. 머 리 말

靜菴 趙光祖는 중종 10년(1515)에 정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중종 14년(1519)에 己卯士禍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한 인물이다. 겨우 4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후대 사림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아 金宏弼, 丁汝昌, 李彦迪, 李滉과 함께 東方五賢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광조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를 낮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그가 현실정치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상만을 추구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급박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하였던 개혁정치가였다고 역사적으로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물에 대한 이 같은 상반된 평가는 과거 개혁정치를 바라보는 오늘에 있어서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조광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흔히 말하는 급진 개혁적인 측면이 아닌 조광조의 정치 이상이 현실정치에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왜 상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

1) 이에 대한 주요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 현량과 연구 첨보」 『대구사학』 12·13, 1977.
김광철, 「정암 조광조의 정치사상」 『부산사학』 7, 1983.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한국문화』 4, 1983.
최이돈, 「16세기 사림파의 천거제 강화운동」 『한국학보』 15, 1989 등.
조승호,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연구」 『강원사학』 6, 1990.
정두희, 「기묘사화와 조광조」 『역사학보』 146, 역사학회, 1995.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정두희, 「소격서 폐지 논쟁에 나타난 조광조와 중종의 대립」 『진단학보』 88, 1999.
김정신, 「조선전기 사림의 '공'의식과 군신공치론 - 조광조·이언적의 학문·정치론」 『학림』 21, 2000.
송웅섭,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한국사론』 45, 2001.
정두희, 「조광조의 복권과정과 현량과 문제 -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성격에 관한 첨언」 『한국사상사학』 16, 2001.

이를 위하여 먼저 그의 중심사상을 天人合一論과 君臣共治論인 君主修身論, 大臣責任論, 諫官役割論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개혁으로 조광조가 추진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이었던 昭格署 革罷, 賢良科 實施, 靖國功臣 改正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개혁정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조광조의 정치개혁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연산군 치세의 廢政과 制度紊亂, 民生疲弊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옮김), 「1519년의 현량과」 『역사와 경계』 42, 2002.

Ⅱ. 중종반정 직후의 정세와 조광조의 등장

조선 건국 후 중종대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은 정치의 治·亂世가 교차하였던 기간이었다. 건국 초기에는 開國功臣들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차차 왕권이 안정되어가면서, 세종대(1418~1450)에는 애민사상의 결정체인 훈민정음의 창제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문종의 단명에 따른 나이어린 임금 단종이 즉위하면서 사태가 급박해졌다. 세조는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목숨까지 거두었을 뿐 아니라, 단종의 생모이자 문종 妃인 顯德王后를 庶人으로 낮추고 그녀가 묻힌 昭陵까지 파헤쳐버렸다. 이는 왕실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인륜도덕을 짓밟는 참변이었다. 이후 성종대(1469~1494)에는 왕실의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고 훈구파를 비판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림의 대두로 훈구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연산군대에는 「弔義帝文」을 발단으로 戊午士禍(1498)가 일어나 많은 사림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1504)에 또 다시 생모 윤씨의 사사에 따른 甲子士禍가 일어나 무오사화 때 목숨을 겨우 부지한 사림들까지 희생당하게 되었다.

연산군의 이러한 행위는 측근인물들의 정치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연산군 12년(1506) 군사력을 장악한 친위세력의 모반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산군의 寵臣이었던 辛允武가 朴元宗 등에게 반정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먼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박원종이 成希顔 등과 함께 거사하였고, 신윤무 등 연산군의 총신들이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중종반정이 일어났다.[2)]

중종반정은 이처럼 주도세력이 연산군 舊臣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연산군의 폐정을 묵인하였던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산군 구신에 의해 반정이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역

2) 『燕山君日記』 卷 63, 燕山君 12年 9月 2日(己卯). (조선왕조실록 CD-ROM간행위원회, 『(국역)조선왕조실록(컴퓨터파일)』 이용. 이하 생략.)

모로 인해 반정이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대다수 신료를 공신에 포섭하여 반대파 형성을 막으려 하였고, 연산군대의 총신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기득권을 인정하고 숙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다.[3]

공신책봉을 크게 늘리고 구세력의 청산을 최소화하는 처리방안은 정국의 안정을 꾀한 것이었지만, 박원종 등이 연산군의 측근과 영합하여 국왕을 교체하였다는 도덕적 약점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연산군의 폐정을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를 수립할 것을 표방한 반정 이념과는 동떨어진 처리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반대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역시 공신을 대규모로 책록한 것으로서, 이를 비판하는 대간의 상소가 계속 제기되었다.[4] 이와 함께 공신에 다수의 연산군 총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위훈논의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히, 연산군대에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박해를 받아 죽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드러내어 상을 베풀어야 하며, 연산군대의 학정을 도왔던 사람들은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연산군대 被禍人이 伸寃되고 이들 다수가 정계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들은 공신에 포함된 연산군 총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불안한 정계의 움직임은 연이은 모반사건으로 표출되었다.[5]

첫 번째 옥사는 金公著와 朴耕의 옥사이다.[6] 옥사의 주요 인물인 김공저는 醫官이었고, 박경은 庶孼 출신으로 문장에 능한 인물이었다. 또 함께 연루되었던 조광보는 유생으로서 식견이 고명하고 직언을 잘하였던 인물로서 이 때에 그는 박원종에게 광인이라고 인정되어 조광조 등과 함께 풀려났었다. 이 사건은 柳子光·朴元宗에 대한 축출을 도모하며 일어난 것이었다. 조광보는

3)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4) 『中宗實錄』 卷1, 元年 10月 5日(庚戌).
5) 정두희, 『조광조 : 실천적 지식인의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카넷, 2001.
6) 『中宗實錄』 卷2, 2年 윤正月 25日(己巳).

鞫問 당시 반정공신의 우두머리 중의 한 사람이던 朴元宗이 연산군이 거느리던 여자들을 소유하게 된 것과 柳子光이 중종반정 이후에도 정국공신이 되어 국가 원로로 대접을 받는 현실을 비난하였다. 그의 주장은 당시 연산군 총신에 대한 거부감이 반정 주도세력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옥사는 李顆의 옥사이다.[7] 이 사건은 박원종을 제거하고 甄城君 悖을 옹립하고자 한 모의로 일어났다. 이과는 성종 22년 17세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 때에는 33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대사성의 직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공초에서 연산군의 구신들은 반정 후에도 여전히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자신의 관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신남설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 옥사는 辛服義의 옥사이다.[8] 이 역시도 반정 후의 논공에 불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당시의 정국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어 돌출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우선은 반정의 주역들이던 정국공신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항상 새로운 왕의 추대 문제와 결부되어 토로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네 번째 옥사는 貞松守 錫孫, 永定守 福重, 義山令 潤 등의 옥사 역시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9] 이는 주어진 상이 박탈된 것을 분하게 여기며 일어났다. 더욱이 왕을 폐위하고 새 왕을 옹립하려 한 언사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종의 왕권이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朴永文과 辛允武의 옥사 또한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그 불만이 중종의 폐위, 새 왕의 옹립으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10] 박영문과 신윤무는 중종반정 계획 당시부터 참여한 공신이었다. 그

---

7) 「中宗實錄」 卷3, 2年 8月 26日(丁酉).
8) 「中宗實錄」 卷7, 3年 11月 29日(癸亥) .
9) 「中宗實錄」 卷9, 4年 10月 28日(丙辰) .
10) 「中宗實錄」 卷9, 8年 10月 22日(丙辰) .

당시 박영문은 軍器寺僉正, 신윤무는 軍資監副正으로 이들은 반정이 성공하자 곧 정국공신에 봉해졌다. 하지만 반정에 큰 공을 세운 자신들과 같은 무인들이 계속 소외되고, 공을 세우지도 못한 문신들이 연이어 승진 발탁되는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역모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이상의 다섯 번의 역모사건은 모두 고발자들이 꾸며 댄 흔적이 많은 것이기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한결같이 반정 이후의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치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었다.

연산군대의 정치적 불안은 무엇보다도 민생의 고통과 피폐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의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욕구는 끊이지 않았고, 지배층의 계속되는 부패와 타락으로 기강과 법도가 크게 훼손되어 거의 국가적 혼돈 상태에 처해 있었다. 절제력을 상실한 채 향락에 빠진 군주를 위해 국가 권력과 재정이 동원되었다. 임금의 무도한 환락을 위한 과다한 공물의 충당은 백성의 부담으로 돌아감으로써, 도탄에 빠진 민생은 날로 황폐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로 잡겠다고 중종반정이 일어났지만, 중종반정이 일어난 지 10년이 된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과다한 공신 책봉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였다. 공신에 책봉되면 科田 외에도 세습이 가능한 막대한 토지와 노비가 주어졌다. 게다가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고리대를 일삼으며 토지를 겸병하였다. 토지 겸병의 확산은 公田의 감소를 가져왔고, 국가에서는 줄어든 조세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민생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다.[11]

또한 조선 건국 이래 사회가 불안하고 국방력이 약해지자 이민족이 빈번하게 침략하였고, 이 역시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중종대에는 북방으로는 여진족의 추장인 速古乃의 잦은 국경 침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11) 「中宗實錄」 卷28, 13年 5月 30日(戊辰).

있었고, 남방에서는 삼포의 왜인들이 변란을 일으켜 삼포를 폐쇄하였다가 다시 교역을 허가하는 등 소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할 때 천재지변의 災異마저 겹치면서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당시에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것은 천명이고, 천명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군주라는 '天人感應說'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재이를 내릴 조짐이 보이면 군주의 不德으로 생각하여 조정과 왕실은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재이 현상에 대해 위정자와 백성들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권력 기반이 취약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재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변이 생기면 조정이 어수선해지고 임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를 기다려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악용하는 신료들도 있어, 민심은 동요하고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적 불안 못지않게 사상적인 문제도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연산군의 폐정을 일소하겠다는 취지로 반정이 일어났으나, 정국공신들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민생개혁이나 민생교화, 또는 인재등용 같은 새로운 정치는 있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조광조는 한훤당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광조가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김공저와 박경의 옥사였다. 조광조는 이 옥사에 본의 아니게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그 때 그들이 나누었던 내용은 조광좌가 공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다시 생각하니, 신이 집을 빌려 글 읽는 일로 朴耕의 집에 갔었는데, 경이 말하기를, '文瑞龜가 지금 金湜의 집에 왔으니, 나와 함께 가 보자.'하므로, 곧

함께 갔더니, 문서귀·趙光祖가 과연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신 등이 경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물으니, 경이 말하기를, '학자는 마땅히 《중용》·《대학》을 읽어야 한다. 학자의 학업이 고명해지지 못하는 것은, 과거 공부가 누가 되기 때문이다.' 하므로, 서귀가 경에게 묻기를, '예전에는 향리에서 선거하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의 과거 제도는 파하여야 할 것인가? 자격을 따라 쓰는 법 역시 쓰지 말아야 할 것인가? 庶孼중에 재주있는 자는 뽑아 써야 할 것인가?' 하였습니다.[12]

이들은 현행의 과거 제도의 문제점과 그것을 대신할 천거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자품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비록 당시 조광조의 생각이 아니라 박경의 입을 통해 나오기는 했지만 함께 교류하며 지냈다는 것을 통해 조광조 역시 비슷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중용』과 『대학』 등 성리학의 기본 경전을 읽고 배우며, 더 나아가 조선 왕조의 현실적인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종 8년 소위 정국공신의 三功臣으로 알려진 반정의 세 주역인 朴元宗(1467~1510)·柳順汀(1459~1512)·成希顔(1461~1513)이 잇달아 사망하자 중종이 직접 나서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정국공신들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느낀 중종은 자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조정의 金安國, 李耔, 權橃 등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때쯤 조광조가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정에서는 朴祥과 金淨이 폐비 신씨를 복위하자는 愼妃復位論을 주장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

중종 9년(1514)에 재변이 계속되자 임금은 구언의 전지를 내렸다.[13] 그리고 그 구언에 박상과 김정은 폐비 신씨를 복위하라는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14]

12) 『中宗實錄』 卷2, 2年 윤正月 26日(庚午).
13) 『中宗實錄』 卷20, 9年 9月 27日(丙戌).

신비복위론은 반정 주도 세력들이 반정 당시 연산군의 처남인 愼守謹을 제거한 뒤, 중종의 부인 신씨를 처리하자고 건의하여 강제로 부부의 관계를 단절하고 폐비로 만들었던 일에 대해 중종 10년에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왕비 간택 문제에 직면하며 폐비 신씨를 복위하자는 것이었다.[15]

반정공신들은 이러한 박상 등의 의도에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몰아가며 당시 조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16] 결국 박상과 김정을 문초하고 유배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조광조가 알성시에 급제하여 두 달이 지나 司諫院 正言으로 임명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나섰다.

> 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관계되어, 통하면 다스려지고 평안하며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하므로, 임금이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서 위로 公卿·百執事로부터 아래로 閭巷·市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하나, 言責이 없으면 스스로 말을 극진하게 할 수 없으므로 諫官을 두어 그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다 마음을 비워 놓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은 언로가 혹 막힐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朴祥·金淨 등이 求言에 따라 進言하였는데, 그 말이 지나친 듯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죄줍니까? 대간이 그것을 그르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禁府의 郎官을 보내어 잡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간이 된 자로서는 언로를 잘 열어 놓은 뒤에야 그 직분을 다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 등에 대하여 宰相이 혹 죄주기를 청하더라도 대간은 구제하여 풀어 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언로를 훼손하여 먼저 그 직분을 잃었으니, 臣이 이제 正言이 되어 어찌 구태여 직분을 잃은 대간과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兩司를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여소서.[17]

---

14) 「中宗實錄」 卷28, 10年 8月 8日(壬戌).
15) 「中宗實錄」 卷1, 元年 9月 9日(乙酉).
16) 「中宗實錄」 卷22, 10年 8月 11日(乙丑).
17) 「中宗實錄」 卷23, 10年 11月 22日(甲辰).

몇 달에 걸쳐 전개된 논쟁을 통해 결국 사간원의 최하 관원인 한 정언의 주장대로 대간은 모두 교체되었으며, 박상과 김정은 사면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 한 차례의 문제 제기로 조정 전체가 극단적인 시비 논쟁에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조광조 자신은 다시 관여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근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논리가 합당하였으며, 또한 당시 핵심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냉정하게 논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는 신중함도 보였다.

이로써 조광조는 이후 정국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Ⅲ. 정치개혁의 사상적 기반

1. 天人合一論

조선의 지배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완전한 인간성 실현의 표준을 자연 즉 天에 둔다. 성리학에서 자연과 인간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연속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고찰의 결과가 인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天은 인간이 영위해야 할 가장 올바른 삶의 형태이고, 자연과 인간이 완전히 일치되는 天人合一을 달성하였을 때 인간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천인합일론은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논리로 인간의 도덕적 실천이 자연의 질서에 완전히 합치될 때 인간사회의 질서가 가장 완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광조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실정치를 성리학적 정치이념으로 개혁하려 하였고, 천과 인이 하나가 되는 이상사회를 이룩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천도에 따른 정치인 왕도정치를 추구하며 '敬'을 중시여겼고,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仁'의 자세 또한 중시여겼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사회의 질서는 질서정연한 천의 이치를 파악하여 그 道에 따라야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謁聖試 對策文에서 이와 같이 말한 바 있다.

> 하늘과 사람은 하나에 근본했기 때문에 하늘이 일찍이 그 이치를 사람에게 없게 하지 않았고, 인군과 백성은 하나에 근본했기 때문에 인군이 일찍이 그 道를 백성에게 없게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러므로 옛날의 성인들은 천지의 큰 것과 億兆 백성들의 무리를 하나로 삼고, 그 이치를 보아 그 道에 處하게 하였습니다. 이치를 보았기 때문에 천

지의 精氣를 지니고 神明의 덕을 통달한 것이며, 道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精密하고 조잡한 물체들을 조화시키고 인류의 절차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므로 是是非非와 善善惡惡이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천하의 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되고 천하의 물건이 모두 그 공평함을 얻게 되오니, 이것이 모든 조화가 수립되고 다스리는 방법이 이루게 되는 것이옵니다.[18]

이는 하늘의 밝은 뜻이 완성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광조의 관점에서 천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바람직한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천리를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근원적 차원에서 도를 갖추고 있는 평등한 존재로 상정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천리대로 본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상적 질서를 현실 정치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천과 인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질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근본원리에서 공통의 理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그는 진사시험 「春賦」에서 말하였다.

하늘에 있어서는 봄이요,	在天兮春
사람에 있어서는 인이로다.	在人兮仁
모두가 태극을 근본으로 하니,	皆本太極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로다.	異而同兮
이를 안 이가 누구더냐?	識此何人[19]

자연과 인간은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의 이치에 근본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일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근본원리인 理가 인간의 근본원리인 仁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18) 『靜菴先生文集』 卷2, 「謁聖試策」.
19) 『靜菴先生文集』 卷1, 「春賦」.

마음은 천지와 크기를 같이할 수 있고, 四時와 운행을 같이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천하공동의 양심이 있고 천하 만물에는 한 가지 이치에 근거하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천인합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광조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서로 조화할 수 있는 근거를 인간의 내면에서 찾았다. 그리고 항상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 하물며 인군의 한 마음은 하늘의 큰 것을 체득해서 천지의 기와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마음의 운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일일의 기후와 일물의 성품이라도 그 가히 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겨서 사곡되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른바 영묘하다는 것이 침체되고 사사로운 감정에 질곡이 되어 능히 유통하지 못하여서 천리가 어두워지고 기도 또한 막혀서 천성과 인륜이 무너지고 만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이다.[20]

이것은 천인합일의 경지는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조광조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인간을 도를 실현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그는 현실사회의 모순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개혁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요순시대의 지극한 도의 정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선조의 대부분의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광조도 천인관계를 천인감응의 관점에서 인식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연현상은 정치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현실정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천재는 천인합일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정치에 대한 천의 경고인 것이다.

> 하늘과 사람의 사이는 먼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까운 것입니다. 하늘이

---

20) 『靜菴先生文集』 卷2, 「戒心箴」.

異變을 일으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라에 도가 없어서 危亡할 조짐이 생기려고 하는데도 혼미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늘은 災變을 일으켜서 꾸짖음으로써 이것을 알려 주고, 또한 세상 일이 점점 좋아져서 至治를 이룰 수 있는 기미가 있는데도 상하가 오히려 더디고 의심하여 진전하지 못하면 역시 재변을 일으켜서 깨우치게 하여 더욱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상하가 만약 서로 사귀어 닦아서 더욱 힘쓰지 아니한다면 천심은 무상한지라 마침내 반드시 망하고 말 따름이니 가히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2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광조에게 있어 천인합일론은 당시 정치사회의 질서가 회복해야 할 기준이 되었으며, 나아가 현실정치에서 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개혁정치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천도의 정치인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경'과 '인'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군주의 수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2. 君臣共治論

조광조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朝廷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다. 군주를 정점으로 하여 구성되는 조정은 대신과 대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그는 군주와 대신, 대간의 활동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이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를 역설하게 된다.

그는 협동하고 화합하는 조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조정이 화합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신과 대간 사이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조정의 협동과 화합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군주를 정점으로 하여 대신, 대간의 구성이 잘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

21) 「靜菴先生文集」 卷3, 「檢討官時啓一」.

1) 君主修身論

조광조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말미암은 정계의 혼란과 민생의 불안을 몸소 체험하면서 군주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君主가 德을 배양하는 일에 힘써 賢君이 되어야 하며, 현군의 성품은 단순히 지혜가 있거나 총명한 정도가 아니라 德性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주는 德을 배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군주가 덕을 돈독히 닦으면 백성들이 자연히 교화되어 지치는 쉽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사람들이 말하기를 '후세의 治道가 점점 낮아져서 옛날처럼 될 수가 없다' 합니다. 과연 이말과 같다면 지금은 禽獸가 될 것이고 다시 사람의 이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三代의 정치를 지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먼저 임금 자신의 덕을 닦고 나서 그 방법을 사물에 옮겨 행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감화하여 자연 덕을 닦을 것입니다. 나의 덕은 닦지 않고 단지 사물에만 선을 실시한다면 아무리 실시를 잘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자신의 덕을 돈독히 닦고 온갖 교화가 모두 자신의 밝은 덕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이 자연 우러러 보고 기뻐해 마지않을 것입니다.[22]

이러한 덕은 敬과 仁에 의해서 배양되기 때문에 먼저 경과 인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은 "마음이 항상 분명하여 해이해지지 않는 상태"로 純一하고 잡념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그는 군주의 덕은 경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며 덕성을 기르는 데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

22) 「中宗實錄」 卷31, 13年 1月 27日(丁卯).

인군의 덕은 敬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안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은 연후에 아랫사람이 이것을 보고 느끼어 일어나게 됩니다. 일을 제재하고 물건을 응하는 것이 마치 빈 거울과 평평한 저울과 같이 하여야 가합니다. 인군의 얼굴 빛이 단정하고 엄하면 宦官과 궁첩들은 스스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23]

이것은 군주가 경의 자세를 지니고 임할 때에 아랫사람들은 분발하게 되며,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경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사회에 공경하는 풍토가 이룩될 수 있다는 이치인 것이다. 더불어 경과 함께 인의 자세를 지녀야 덕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仁이란 天地가 만물을 낳는 이치로서 끊임없이 낳고 낳아서 가장 긴절한 것입니다. 임금이 천하에 임금 노릇하고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몸소 仁德을 체득하여 만물이 각각 그 본성을 얻게 한 뒤에라야 천지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인은 四德을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仁道를 다 실행하게 되면 禮·義·智 세가지는 자연 그 속에 다 있게 됩니다.[24]

이는 인도를 실행하면 예, 의, 지는 자연히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인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인덕을 체득한 뒤에 천하에 임하여 통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군주가 옳은 군주로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며 천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중요시하던 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릇 인심이 천리에 합하지 않고 털끝만큼이라도 사념이 끼게 되면 인이 아닙니다. 대저 仁은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인데, 약간 옳은 것을 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천리를 극진히 하여 조금도 사사롭고 사특한 마음이 없어

23) 「靜菴先生文集」 卷3, 「試讀官時啓十六」.
24) 「中宗實錄」 卷34, 13年 9月 15日(壬子).

야 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孔子의 문하에 다니는 제자 중에 어진이가 진실로 많았는데, 顔回 한 사람만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한 것은, 인이 큼을 말한 것입니다. 寂然히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환하기 맑고, 일에 응할 적에도 천리에 합하는 것이 곧 인입니다.[25]

그는 인을 "약간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천리를 극진히 하여 조금도 사사롭고 사특한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즉, 순리를 쫓고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로 천리에 합치되도록 일을 처리할 때 인은 실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인덕을 체득한 뒤에 천하를 통치해야 현군이라는 칭송과 함께 올바른 정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광조는 군주가 통치에 앞서 덕을 배양하는 일에 힘써야만 왕도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왕도정치라 함은 국가를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조정을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덕의 배양도 결국은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면서 만민에게 평화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끊임없는 수양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임금은 홀로 있어 신하들이 보지 않은 때에도 항상 삼가는 謹獨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홀로 있을 때에 삼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오래 간다면 그것이 용모에 나타나고 정사를 베푸는 즈음에 발표되어 반드시 드러나서 가리울 수 없게 된다. 결국 그러한 마음은 정치를 훼손하고 교화를 해치는 데 이르기 때문에 임금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조정의 기강과 법도를 세우는 근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정말로 도를 밝히고 홀로 있는 때를 조심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요점으로 삼으시고, 그 도를 조정의 위에 세우

25) 「中宗實錄」 卷34, 13年 11月 4日(庚子).

시면 기강은 어렵게 세우지 않더라도 서지고, 법도는 어렵게 정하지 않더라도 정해질 것입니다.[26]

이처럼 정치에 있어서 임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하여 후에 중종의 신임을 받아 가까이 있으면서 임금을 일깨우고 독려하는 말을 자주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양한 임금의 마음은 어떤 일에서 발휘되는가? 그것은 바로 임금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 소인과 군자를 분별하여 소인은 물리치고 군자를 등용하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으로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군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능력 있고 사심 없는 바른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여야만 바른 정치가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바른 정치를 위해서 소인을 물리치고, 군자를 등용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다.

임금의 마음이 밝아야 남의 邪正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인 중에도 군자같은 자가 있으나, 신하를 대할 때 매양 '이 자가 소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 언행을 보면 자연 그 賢否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이 格物致知의 공부가 없으면 군자를 보고 소인이라 할 수도 있고 소인을 군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인이 군자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군자를 소인으로 몰아, 혹 언행이 서로 다르다 하거나 黨錮의 선비처럼 명예를 탐한다 할 것이니, 임금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27]

임금의 마음이 밝아야 君子와 小人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格致誠正의 공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혹 군자를 소인이라 여기거나 소인을 군자로 여기게 됩니다.[28]

---

26) 『靜菴先生文集』 卷2, 「謁聖試策」.
27)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28日(丁酉).
28)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28日(丁酉).

조광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한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군주의 마음을 먼저 밝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집결된다. 즉, 반정을 거쳐 왕위에 오른 중종은 많은 공신들에 둘러싸여 소인과 군자를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분별했다 하더라도 공신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소인은 물리치고 군자는 등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조광조는 군주에게 소인과 군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마음을 위해 수신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하였던 것이다.

2) 大臣責任論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조광조는 군주의 마음을 모든 정치의 근본으로 보고 군주의 존재를 어느 누구보다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주의 마음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모든 정사를 군주 혼자서 처리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는 조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보았고, 그러한 존재를 대신으로 보았던 것이다.

조광조는 대신의 직책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법도가 대강 정해지는 것과 기강이 대강 서게 되는 것은 일찍이 대신을 공경하고 그 정치를 맡기는 데 있지 않은 것이 없사옵니다. 인군은 일찍이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고 반드시 대신에게 맡긴 뒤에 다스리는 도가 서게 됩니다. 인군이란 것은 하늘과 같고 신하란 것은 사시와 같으니 하늘이 스스로 행함에 四時의 운용이 없으면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군이 自任하고 대신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교화가 일어나지 못하옵니다. 다만 일어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오라, 하늘이 스스로 행하고 인군이 스스로 맡아서 한다면 하늘이 되고 인군이 되는 도를 크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29]

이것은 하늘이 至高의 위치에 있지만 四時의 바른 운행 없이는 만물이 자라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즉 군주와 신하를 하늘과 사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늘은 존재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造化는 사시의 운행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군주는 천리를 관찰하고 바른 도에 처하여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사는 의정부와 6조의 신하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조광조는 이러한 대신의 직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대신이 남의 착함을 들으면 마치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같이 해서 아름답게 착함을 좋아하는 정성이 있으면 모든 執事들이 각각 그 직업에 충실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며 위로는 임금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것도 그 책임은 대신에게 있는 것이니 대신들은 진실로 마음을 합하여 그 착한 것은 인정하고 그 착하지 못함을 바로 잡아서 三公은 六卿을 바로잡고 육경은 百官을 바로잡으면 백관은 서로가 스승이 되어 조정은 밝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은 반드시 늙고 완성된 사람을 얻어 씀이 좋은 것입니다.[30]

대신이란 직책은 위로는 군주를 보좌하여 바른 정사를 펴게 하고, 아래로는 百官과 백성을 감화시킬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즉, 대신은 '남의 착함을 들으면 마치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같이 해서 아름답게 착함을 좋아하는 정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신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위로는 군주를 움직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대신은 군주를 보필하여 바른 정치를 이끌어가는 존재이므로 국가가 危疑스러울 때 몸을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힘을 다해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31]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인

29) 『靜菴先生文集』 卷2, 「謁聖試策」.
30) 『靜菴先生文集』 權4, 「大司憲時啓四」.

물이어야 하며, 혹 군주의 비위를 거스리는 의견이라도 옳게 생각한다면 과단성있게 開陳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대신에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군주에게 상주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결국 대신은 임금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임금의 잘못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바로잡을 책임과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실재적인 정사를 처리하는 책임 즉, 조정의 소통과 조정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시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중론을 모아 임금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 하겠다.

3) 諫官役割論

대신이 군주를 보필하여 조정을 운영해 가는 존재라면 대간은 공론을 유지하고 국가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라 하겠다. 이는 대신이 군주의 手足이라면 대간은 군주의 耳目과 같은 것임을 의미한다. 즉, 대간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군주의 이목은 밝아지게 되어 올바른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관의 역할은 일찍부터 주목되었다.[32]

조광조는 '군주는 言路를 개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는 明主는 남의 말을 좋아하고 자기 말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대로 暗君은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33] 바로 명주와 암군의 여부는 언로의 開放與否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로의 개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31) 「中宗實錄」 卷36, 14年 5月 27日(己未).
32) 최승희, 「조선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 1980.
33) 「中宗實錄」 卷34, 13年 8月 30日(丁酉).

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관계가 되옵니다. 통하면 다스려지고 평안하며, 막히면 어지럽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군은 언로를 넓히기를 힘써서 위로 公卿·百執事로부터 아래로 閭巷·市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을 할 수 있게 하옵니다. 그러나 言責이 없으며 스스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諫官을 마련해서 이것을 맡게 하였사오니, 그 말한 것이 비록 혹 지나친 것이 있더라도 모두 회유하고 관용하는 것은 언로가 혹시라도 막힐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34]

본래 언로는 일반 백성에게 까지 넓혀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言官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언로의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 일반 백성의 말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언관이 하는 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대신도 대간의 論辨을 일일이 간섭하고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대간의 일을 비록 소소한 일이라도 대신이 모두 논하게 되면 대간이 수족을 놀릴 데가 없고 또한 뒷 폐단이 있을 것이니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범 공론이 대간에게 있은 후라야 국가의 다스림이 안정되는 것이요, 또한 대간의 논은 비록 한때 강경함이 중도에 벗어나더라도 잘못이 아닙니다. 만일 기세가 시들해지는데 대신이 또한 저지하여 억제한다면 국가의 공론이 의탁할 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 등이 아뢴 정원의 일을 만일 경연에서라면 서로 가부를 논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일도 아닌데 대신이 들어와 정원은 구원하고 대간은 억제하여 대간의 기세가 이로부터 시들어질 것이니, 그 경거망동하여 체통을 잃음이 심합니다.[35]

이는 대간의 지위가 대신들보다는 下位職이므로 위세로서 이들을 저지하거나 억압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신은 이

34) 「中宗實錄」 卷23, 10年 11月 22日(甲辰).
35) 「中宗實錄」 卷36, 14年 6月 22日(甲申).

들을 보호하거나 협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간의 역할은 언로를 넓히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 또한 대간의 역할로 중요하다 하겠다.

> 대간이 된 자는 국가에 일이 있어서 그 기미를 알면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서 기강을 붙들어 일으켜야지, 본디 한 가지 일의 잘못을 논하고 한 사람의 잘못을 논하는 것으로 그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 理의 근원이 시작되는 데를 생각하여 미리 도모해서 그 뒤를 善하게 해야 하는데 대간이 직분을 다하려 하더라도 임금께서 믿어 주시지 않으면 역시 행할 수 없습니다. 크게 간사한 자가 있어서 흉악한 마음을 감추어 두고 있으면 또한 염려스러운 일인데, 신은 오래 臺官으로 있으면서 조금도 功效가 없었습니다.[36]

이는 대간의 역할이 언로를 넓히는 枝葉的인 것에서 벗어나 국가 기강을 세우는 것과 같은 원대한 計策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대간의 또 다른 역할은 국가를 위한 對策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建議 施行하여야 한다. 자신이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 받았을 때에 비로소 대간은 그 職分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광조의 생각은 당시 언론활동이 개인의 비행을 들추는 데에 치중했던 경향을 반성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 수립에 대간이 적극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37]

그는 대신이 대간을 두려워하고 대간이 대신을 헐뜯는 풍조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훌륭한 정치가 이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을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간만이 공론을 주장하여 대신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신도 공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대신이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활동을 벌

---

36) 「中宗實錄」 卷37, 14年 10月 24日(甲申).
37) 김광철, 「정암 조광조의 정치사상」 「부산사학」 7, 1983.
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옮김), 「1519년 현량과」 「역사와 경계」 42, 2002.

여야 조정의 화합은 쉽게 이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조광조는 비판과 견제, 조정과 통합을 통해 군주, 대신, 대간이 균형을 이루어 덕치를 실현하는 것을 조정의 목표로 하였다.

군주는 바른 정치를 위하여 자신이 謹獨의 자세로 수신하여 君子와 小人을 분별하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대신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실재적인 정사를 처리하는 책임을 지며, 아랫사람들의 중론을 모아 그것이 임금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간은 言路를 넓히고 대신과의 화합을 통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적극 참여할 때에 비로소 정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유교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겠다.

Ⅳ. 정치개혁의 과제와 실천

조광조는 유학의 이상을 현실정치에 구현하여 요·순 시대의 至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치의 실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치의 효과는 빨리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근래 조정의 일이 거의 다스림을 향하고 있으나 그러나 또한 그 다스림의 효과는 갑자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군자는 비록 다스림을 이루는 것을 찬양하고자 하나 不敢하게 여기는 것은 소인이 뜻을 얻지 못한 자가 곁에서 비방하고 훼방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국이 비록 다스림에 향하더라도 소인이 비난하고 훼방하게 되면 조정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38]

그가 생각하는 지치는 이론의 측면만 강조하였던 고전적인 의미의 지치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군주가 신하들의 도덕적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의미의 지치였다.

> 반드시 모름지기 상하가 서로 믿어서 임금과 대신은 항상 사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서 착한 일을 하는 자로 하여금 믿는 바가 있게 하고, 또한 그들의 착함을 알면 그를 표방하여 써서 賢과 愚를 혼돈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가히 至治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39]

즉, 군주가 사림들을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용한다면, 요·순 시대의 지치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조광조는 이처럼 삼대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혁을 추진해

38) 「靜菴先生文集」 卷3, 「試讀官時啓十五」.
39) 「靜菴先生文集」 卷3, 「檢討官時啓二」.

나갔다. 그에게 있어 개혁은 士習을 바르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나아가 국가의 터전을 굳게 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文王·周公의 법도 나중에는 폐가 있었는데 하물며 후세의 법이겠습니까?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을 변통하려 하는 것도 불가하며, 변통해야 할 것을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것도 불가한 일입니다.[40]

그는 문왕 주공의 법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리에 맞고 훌륭했던 법도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유명무실해지든가 심지어는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새 사회에 맞는 법을 찾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변통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종의 옛 법을 함부로 고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변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41] 그리고 이와 더불어 조종의 법에 얽매여서 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만약에 조종이 아직 거행하지 못한 일을 능히 행한다면 전 임금들을 더욱 더 빛내게 될 것이요, 한갓 조종의 제도를 지켜서 전 임금들의 일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이는 집을 짓고서 꾸미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유위한 임금이라도 高遠한 것만을 힘써서 成王의 법을 변란한다면 도리어 준수하는 것만도 못할 것이나,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서 治具가 이미 경장되었다면 한갓 조종의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42]

---

40) 「中宗實錄」 卷33, 13年 5月 18日(丙辰).
41) 「靜菴先生文集」 卷3, 「檢討官時啓四」.
42) 「中宗實錄」 卷29, 12年 8月 8日(辛亥).

여기에서 조광조는 선왕의 법을 변란한다면 오히려 준수하는 것만 못하겠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前代의 일을 변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여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였다.

개혁의 일시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약간의 성공에 안심하여 머뭇거린다면 결국 제왕의 정치를 이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43]

그는 지치의 실현을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문제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조광조는 "민생의 衣食이 넉넉해지고 모든 일이 완벽해진 뒤에 古禮를 행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는 "古道를 행하고 나서 保民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주장했다.[44] 구체적인 제도의 개혁보다는 백성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광조가 개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은 중종 13년(1518)으로, 그가 대간의 우두머리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였던 大司憲에 임명되었던 해였다.

이 때부터 昭格署 革罷, 賢良科 實施, 靖國功臣 改正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쟁점들을 제기하면서 정국의 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45] 이러한 쟁점들은 지나간 시대의 부정적 유산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조광조에게 있어 그가 생각한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었다.

1. 昭格署 革罷

기존 정치세력의 비리로 훼손된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풍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다. 조광조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소

43) 『靜菴先生文集』 卷3, 「參贊官時啓五」.
44) 『靜菴先生文集』 卷3, 「試讀官時啓十一」.
45)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학』의 보급을 주장하였고, 그 일환으로 향약을 실시하여 성리학의 윤리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유교이념에 맞지 않은 소격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격서는 유교입국을 표방한 조선에서도 연산군 때 잠시 형식적으로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종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에서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중종 대에 들어서도 소격서는 邪道를 숭상하는 곳이므로 혁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중종은 번번이 조종의 관행을 이유로 이 문제에 반대해 왔다. 그러자 조광조는 중종의 조종에 대한 불경과 무례를 비난하고 나섰다.

> 조종께서 과연 신봉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조종께 돌리시면 이는 先祖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무례한 것이요, 옛날 풍속에 따라 우연히 둔 것인데 조종께 돌리시면 이는 선조께 누를 끼치는 것으로서 불경한 것이니, 불경과 무례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46]

조광조는 조종으로부터 내려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원칙을 훼손한다고 하였다. 이 점을 조광조는 상소의 첫머리에서 "도덕적 원칙이 일관되지 않아서 정치가 불순하게 되면, (도와 정치가) 갈라져서 혼란스럽게 된다"는 말로 요약했다. 이 때 이 상소에서 그는 이단에 현혹하지 않는 정신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왕도정치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종의 입장도 완강했다. 소격서 혁파를 주장하며 전 대간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중종은 "조종조에서 혁파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바꾸지는 못 하겠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47] 그러자 조광조는 "明主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며, 暗君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로 중

46) 「中宗實錄」 卷34, 13年 8月 1日(戊辰).
47) 「中宗實錄」 卷34, 13年 8月 23日(庚寅).

종을 압박했다.[48] 조광조의 끈질긴 요구는 한 달 이상 계속되었고, 마침내 중종도 소격서를 혁파하기에 이르렀다.[49]

2. 賢良科 實施

조광조는 왕도정치를 실현함에 있어 많은 인재가 요구된다며 인재등용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제만으로는 인재 등용을 하기에 부족하였고, 이에 군자를 등용하여야 한다며 천거제인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게 된다.

현량과 실시는 이자나 김안국 같은 인물이 먼저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현량과가 지지부지하자 조광조가 이것을 다시 추켜 들며 현량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현량과는 원래 漢나라에서 실시되었던 賢良方正科를 본받자는 것으로 전국의 숨은 인재를 발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출신한 자는 벌써 모두 고위에 있고, 아래는 그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지금이 사람을 뽑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50]

이러한 제안에 대해 중종은 일단 찬성하였지만, 조광조가 제안한 천거에 의한 인재선발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 이유인 즉, 천거할 때에도 역시 재주와 덕행이 있는 인재가 빠질 수 있다거나 후보자 추천에 불공정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領議政 鄭光弼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여 현량과 실시를 반대하였다.

---

48) 「中宗實錄」 卷34, 13年 4月 28日(丁酉).
49) 「中宗實錄」 卷34, 13年 9月 2日(己亥).
50) 「中宗實錄」 卷32, 13年 3月 11日(庚戌).

才行이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께서 쓰려고 하는 뜻을 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거하여 對策으로 뽑는 일은, 재행이 쓸만한 사람이라면 비록 出身이 아니더라도 천용할 길이 있고 출신한 사람 또한 진출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일을 시행한다면 처음 천거할 때에 재행이 특출한 자가 혹 빠지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요, 대책으로 뽑을 때에는 특출한 자가 합격하지 못하거나 특출하지 못한 자가 윗반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조종조의 과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나, 한때 우연히 시행하였다가 뒤에 올 폐단을 알 수 없습니다. 조종의 과거 법을 준수하는 것만 못하다고 보여 신은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51]

이는 조광조가 제안한 천거에 의한 인재선발 방식은 적어도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검증되지 않은 제도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조광조는 중종의 지원에 힘입어 "오늘 시행하면 내일은 古事가 된다"고 응수했다.[52] 그리고 중종 13년 6월에는 의정부와 예조에서 천거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확정됨으로써 현량과의 실시는 기정사실화되었다.[53]

그러나 14년 3월에 있었던 金友曾 사건 전까지는 그가 현량과를 통해 붕당을 결속하려 했다는 공개적인 비난은 제기되지 않았다. 김우증은 무인출신의 정국공신으로 현량과 출신들이 조정을 장악하여 정국공신들을 제거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인물이었다.[54]

하지만 오히려 김우증을 慶興府로 귀양 조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매듭지어졌다.[55] 그리고 한 달 뒤 4월에는 김식을 포함한 28명이 조광조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에 의해 최종 선발되었다.[56]

---

51) 『中宗實錄』 卷32, 13年 3月 12日(辛亥).
52) 『中宗實錄』 卷32, 13年 3月 25日(甲子).
53) 『中宗實錄』 卷33, 13年 6月 5日(癸酉).
54) 『中宗實錄』 卷35, 14年 3月 2日(乙未).
55) 『中宗實錄』 卷35, 14年 3月 5日(戊戌).

이러한 김우증 사건은 정국공신 세력의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들의 위기의식은 중종 14년 10월 조광조가 정국공신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기묘사화 전까지 어느 누구도 현량과의 실시에 담긴 조광조의 정치적 의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사안의 도덕적 정당성 때문이었다.[57] 즉, 조광조가 현량과를 제안하면서 강조하였던 "임금과 도의를 강론할 수 있는 학문과 德器가 겸비된 선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58] 게다가 조광조는 현량과의 실시에 대한 중종의 지지가 확인되자, 중종에게 연산군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士習이 바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자와 소인의 준별을 요구했다.[59] 그리고 임금이 군자와 소인을 명확히 분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60] 또, 중종에게 재위 10년이 지나도록 지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신하들의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61] 따라서 중종도 조광조의 이러한 설득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靖國功臣 改正

소격서 혁파가 마무리되고 이어서 중종 14년 4월에 현량과가 실시되자 곧바로 세 번째 개혁인 정국공신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조광조는 이 문제를 중종 13년 5월에 있었던 군자·소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했다.

> 廢朝때 조정에 드날린 사람들이 단지 功臣되기만 서로 숭상하여 아첨으로 진출하기를 바랐었고, 그 사이에 행적은 비록 높지 못하지만 그의 뜻에 옛사

56) 『中宗實錄』 卷35, 14年 4月 13日(丙子).
57) 정두희. 「조광조의 복권과정과 현량과 문제」 『한국사상사학』 16. 2001.
58) 『中宗實錄』 卷33, 13年 3月 11日(庚戌).
59)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28日(丁酉).
60) 『中宗實錄』 卷33, 13年 5月 4日(壬寅).
61) 『中宗實錄』 卷33, 13年 6月 2日(庚午).

람을 감탄하여 사모하는 사람은 곧 논박과 공격을 받아 용납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하나, 앞날에 대신이 혹 적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소인이 틈을 타게 된다면, 군자가 씨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62]

이는 군자·소인의 분변과 정국공신 개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조광조는 정국공신들 중에 상당수가 연산군 대 寵臣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임금을 시해하고 국가를 찬탈하는 私利의 근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가 발의한 정국공신 개정의 목표는 공신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勳籍에서 삭제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정국공신 개정의 문제를 의리와 사리의 분변 문제로 파악했던 것이다.

중종은 사리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국공신의 개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공이라도 이미 공을 정하고서 뒤에 개정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이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고 논한 일은 번번이 경연에서 아뢰었는데, 그 뜻은 매우 착하나 이의 근원은 차차 막아 가야 한다. 어찌하여 갑자기 이것으로 利의 근원을 막을 수 있겠는가?[63]

이렇게 정국공신 개정 문제에 관련하여 중종과 조광조의 대립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광조의 집요한 설득이 3鼓까지 계속되기도 했다.[64] 이를 두고 사신은 이렇게 논한다.

대간과 대신의 뜻은 자제나 친척이 공이 없이 외람되게 참여한 것을 옳지

62) 「中宗實錄」 卷36, 14年 5月 11日(癸卯).
63) 「中宗實錄」 卷37, 14年 10月 25日(乙酉).
64) 「中宗實錄」 卷37, 14年 10月 29日(己丑).

않다는 것인데, 임금은 자제나 혼인한 친척은 반드시 서로 함께 들었을 것이므로 역시 공이 있다고 하니, 대간이 논한, 상이 치우치게 매인 사의가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그때 홍경주를 믿을 만하다 하여 물어서 결정할 의향이었으니, 간사한 홍경주가 바야흐로 陰謀를 품고서 임금의 마음을 의혹시키고 안팎을 締結하여 두고 틈을 엿보아 제 독한 마음을 부리려고 꾀할지는 어찌 알겠는가?[65]

이는 중종이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정공신의 권기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겠다.

조광조를 비롯한 대간들은 중종에게 정국공신에 대한 시비를 분명히 가려 임금의 도리를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중종으로서는 자신을 국왕으로 옹립한 세력을 일거에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66]

그러나 결국 중종은 조광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100여명의 정국공신 중에서 문제가 있는 76명을 削勳하라는 전지를 내렸다.[67]

65)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0日(庚子).
66)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9日(己亥).
67)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1日(辛丑).

V. 정치개혁의 성격과 평가

76명의 정국공신을 삭훈하라는 중종의 전지가 내려진지 4일 만에 기묘사화는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중종이 의금부에 내린 전지에서 밝힌 己卯士林들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 趙光祖·金淨·金湜·金緑 등은 서로 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과 조정을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朝廷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尹自任·朴世熹·朴薰·奇遵 등이 詭激한 논의에 和付한 일들을 추고하라.[68]

그러나 조광조는 자신은 오로지 임금의 마음만을 믿고 사리의 근원을 근절하여 국가의 기강을 쇄신하고자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신의 나이 삼십팔이옵니다.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믿는 것은 인군의 마음뿐 이로소이다. 망녕되어 국가의 병통이 利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하온 까닭에 國脈을 무궁한 후에까지 새롭게 하고자 했을 다름이옵고 다른 뜻은 전혀 없사옵니다.[69]

鄭光弼, 安瑭, 申鎔 등도 조광조 등의 언행이 과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을 어지럽히는 붕당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중종도 이 점을 받아들여 처음의 賜死해야 한다는 주장을 번복하여 告身을 박탈하고 장 1백과 원방에 안치하는 것으로 감형 조치했다.[70]

---

68)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5日(乙巳).
69) 「靜菴先生文集」 卷2, 「獄中供辭」.
70)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6日(丙午).

중종이 조광조의 감형을 결심했던 것은 그들이 급박하게 지치를 추구하여 물정에 어긋나긴 했지만,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71] 그러나 중종은 臺閣이 권력을 행사하여 혼란시킨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감형은 용납하지 않았다.[72]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중종은 조광조를 마음이 곧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綾州의 유배지에서 사사했다.[73]

조광조는 중종에 의해 등용된 후 도덕정치, 민풍개혁정치, 민생보호정치 등의 정치개혁을 위해 4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기묘사화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4년간의 개혁정치는 조선 중기의 새로운 정치실험이었다. 임금과 신하가 민풍이나 민간교육, 현량과, 정국공신 개정 등의 새로운 정치노력을 선보였고, 훗날 사림정치 과정에서 하나의 모범이며 지향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종(1488~1544)은 조광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조광조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74]는 태도를 보였다. 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황은 조광조를 존숭하였지만, '정암이 天資는 몹시 아름다웠으나 學力이 충실하지 못하여 실패했다'고 판단하여[75] 그가 세 가지 면에서 '不幸하다'고 하였다.[76] 그리고 "만약 德器가 성취된 뒤에 세상에 나갔더라면 이룩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실패를 아쉬워했다.[77]

또, 홍인우(1515~1554)와 같은 당대의 학자는 "정암이 종신토록 살 수 있

71)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5日(丁未).
72)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8日(戊申).
73) 『中宗實錄』 卷37, 14年 12月 16日(丙子).
74) 『朝鮮王朝實錄』에는 중종39년(1544)에만 모두 17건의 조광조 신원 상소가 보인다. 그러나 중종은 한결같이 "조광조의 일은 내가 시말을 모두 알고 있다"(39년 4월 12일 경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조광조는 다르다"(39년 4월 13일 신사)고 말하면서,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군주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신료들의 상소를 끝까지 윤허하지 않았다.
75) 『退溪全書』 「言行錄」 卷5, <類編>.
76) 『退溪全書』 卷48, 「靜菴趙先生行狀」.
77) 『退溪全書』 「言行錄」 卷5, <類編>, 論人物 .

었더라면 사람들에게 끼친 도가 여기서 그쳤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크게 이룬 것이 없음을 아쉬워했다.[78] 白仁傑(1497~1579)은 "考終命은 못하였지만 流風과 遺澤은 죽은 뒤에 더욱 현저하여 후세 사림이 도학을 尊尙하며 王道를 높이고 覇道를 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암의 功"이라고 하였다.[79] 이이는 비록 進退의 미진한 바가 있긴 하였으나 후세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고 그 도는 영원하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80] 趙憲(1544~1592)은 "정암은 斯道를 밝게 이어 세상을 건지고 인심을 맑게 한 공로가 있다"[81]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宋時烈(1607~1689)은 "조정암이 조선에 태어나 도학을 밝힌 것은 周濂溪가 송에 태어난 것과 같다"고 하여, 조광조를 주돈이에 견주고 있음을 볼 수도 있다.[82] 정조(1752~1800) 역시 "정암과 同時代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몹시 애석하다"며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83]

그러나 현대 학자들도 개혁의 순수성보다는 추진에 반해 상당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신석호는 "당시 실정을 보면 남곤 일파만을 공격할 수 없고 조광조 등에도 많은 결함이 있었다"[84]고 주장한 바 있고, 현상윤은 "경세하고자 한 용기와 정성은 충심으로 숭앙할 만하지만 총명함이 부족하여 시의를 판단하지 못한 병통이 있다"고 보았다.[85] 또, 이상백은 "조광조와 그 추종자들은 졸렬하리만큼 급진적이어서 보수파의 의심과 질투, 증오를 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86] 이병도는 "높은 이상으로 지치적 업적은 많이 쌓았으나 실행방법이 너무 과격하였고 시의를 파악하는 역량도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87]

---

78) 『靜菴先生文集』 附錄 卷6, 「行狀」 「又行狀」.
79) 『靜菴先生文集』 附錄 卷3, 「請從祀疏略」.
80) 『栗谷全書』 卷18, 「靜菴趙先生墓誌銘」.
81) 『靜菴先生文集』 附錄 卷3, 「請四賢從祀疏略」.
82) 『靜菴先生文集』 附錄 卷4, 「深谷書院講堂記」.
83) 『靜菴先生文集』 속집부록 권1, 「致祭文」.
84) 신석호, 「기묘사화의 유래에 관한 일고찰」, 『청구학총』, 1935 참고.
85)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암사, 1986 참고.
86) 정두희, 『조광조 : 실천적 지식인의 삶, 이상과 현실에서』, 아카넷, 2000.
87) 이병도, 『조선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9 .

반면 김기현은 "정암이 단순히 일개의 정치가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는 도학자요 선비로서, 비록 짧은 정치적 생명 속에서나마 자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88] 황의동은 "정암의 도학 사상은 한국 유학의 의리적 특성이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 연산 시대의 불의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의리적 가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도학적 삶의 물줄기는 시대에 따라 정의의 수호자로, 진리의 화신으로, 의병의 충절로 다양하게 드러났던 것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89] 또 이상은은 "조정암은 이조유학의 도학적 전통을 처음 세운 유학자인 동시에 지치주의를 정치 포부로 내세운 유신으로서, 정치 무대에서 생기 활발한 창조적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훈구파의 모함으로 기묘사화의 비극을 당한 사람"이라고 평하였다.[90] 주로 류승국은 "정암의 삶은 국가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지고의 것이었으며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성리학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91]고 평가하였으며, 이동준은 "정암은 한국에 있어서 도학의 태두로 숭앙을 받으며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실천적 측면에서 순정성을 발휘하여 치명수지하였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92] 또한 금장태는 "조광조는 숭고한 정신과 절실한 학문으로 조선시대의 도학을 열었으며, 그 정신은 광명정대한 빛이 되어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민족사는 물론, 나아가 세계사의 어둠을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93]

조광조에 대한 이런 상반된 평가는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데 반해 철학사상가들의 평가는 높았던 것이다. 먼저 조광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그가 현실 문제에서 지나치게 이상과 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전후 상황을 고려

88) 김기현, 「조정암의 도학관」, 『민족문화연구』 14, 1979.
89) 황의동, 『한국의 유학 사상』, 서광사, 1995.
90) 이상은, 「조선조 국론에 반영된 의리정신」, 『사문논총』 1집, 사문학회, 1973.
91) 류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92) 이동준,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한울아카데미, 1997.
93) 금장태, 『조선 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하지 않고 급진성을 띠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묘사화를 주도한 훈구세력들의 논리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광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철학자들은 사상적인 측면을 높이 여겨 그의 업적은 동기의 순정성에 있고 그의 행동은 급박했던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편다.

조광조에 대한 평가는 그를 제거하려 하였던 기존 세력들과 중종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가 현실정치를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가 행했던 정치개혁은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적극적인 정치 방식이었다고 사료된다.

조광조가 출사할 무렵의 정치 상황이 연산군 때의 亂政期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이 至難하였다는 사실은 조광조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다. 사화가 선비들을 어떻게 일망타진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항상 재발의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조광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선행을 하는 선비는 몸을 가다듬기에 게을리 아니하며 남들이 자신을 그르게 여길까 염려하여 감히 不善을 하지 못하나, 그 사이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은 자는 善人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마음에 원한을 쌓아두고 있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그 원한을 풀게 되면 士林의 화가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선비도 화가 있을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다만 聖明이 위에 있음을 믿고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善士의 형세는 외롭고 약한 것인데 주상께서 한번이라도 소인에게 쏠리게 되면 폐조와 같은 참혹한 화가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94)

조광조의 정치적 실천을 두고 너무 과격하였다고 비평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가 시세의 흐름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글은 참화의 위기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94)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28日(丁酉).

준다.

이는 또한 소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화를 일으키며, 그러한 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던가에 대해서도 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기묘사화는 위훈 삭제로 큰 위기를 느끼게 된 훈구 세력들의 조직적인 도모가 원인이 되었지만, 특히 반정 이후 발생한 몇 차례의 모반 사건으로 인한 중종의 불안 심리와 방조가 결국 사화 주동세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 발발한 참화였다.

중종은 洪景舟를 중심으로 하던 무사들의 '善類' 제거 음모를 감지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밀지까지 내려 주동세력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종 14년 2월경에는 사헌부와 궁궐의 건춘문에 누군가가 익명의 편지를 단 화살을 쏜 사건이 있었다.[95] 그 편지의 내용은 조광조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정치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종 14년 3월에는 信平君 康允禧의 고변 사건이 있었다.[96] 이 고변 사건에서 밝혀진 내용은 현량과 출신이 조정에 다 등용되면 오래된 신하들은 모두 제거될 것이니, 무인들이 먼저 핵심 인물을 모두 쳐 없애버리자는 것이었다. 정국공신의 개정이 결정되고 이어 현량과가 실시되려 하자 화살 투서 사건과 이런 고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기묘사화를 주도한 그 사람들의 태도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조광조는 정치권력의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군주 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신진들을 대우하는 임금을 만나 특이한 대접에 감동하여 하늘과 어버이를 섬기듯 군주를 믿고, 강개한 뜻을 펼치면서 열기가 오르면 경연에서 식음마저 잊을 정도로 열성을

95) 「中宗實錄」 卷37, 14年 2月 11日(乙亥)와 同年 2月 12日(丙子).
96) 「中宗實錄」 卷37, 14年 3月 2日(乙未).

보였다.

그러나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도학자들의 부단한 추진력에 보조를 맞추기에는 나태한 면이 많은 임금이었다. 일의 기미를 노리는 자들은 임금의 그런 內心을 먼저 읽어 내었고, 모의를 진행해 나가는 단서로 삼았다.

> 이에 임금이 모든 어진 이들을 사랑하고 대접함에, 그들은 매양 경연에 모일 때 글 한 장을 진강하고는 의리를 인용하여 비유하고 경서를 두루 인용하여 미묘한 이치를 캐내었는데, 아침에 강론을 시작하면 해가 기울어서야 파하므로, 임금이 몸이 피로하고 괴로워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고 고쳐 앉기도 하였다. 때로는 용상에서 퉁하는 소리를 내니 남곤과 심정 두 사람은 임금의 마음속에 선비들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는 것을 짐작하고 드디어 꾀를 내어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97)

기묘사화를 주동한 자들이 謀禍의 단서를 찾아내는 대목인데, 도학자들은 위와 같은 주동자들의 권모와 술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곤 등의 행동에 결정적인 동기를 마련해 준 사람은 신진 사류들이 의지하고 있던 군주 중종이었다 하겠다.

중종은 사실상 기묘사화를 주동하는 인물로 변하고 있었다. 실지로 사화가 일어나던 당일 밤까지 조광조를 비롯한 도학자들은 거의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죄를 얻은 까닭을 모르고 있었다.98) 조광조 등은 주동자들이 중종의 묵인하에 모화 논의를 깊숙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군심만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중종은 자신을 옹립한 반정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절의를 강조하는 조광조와 그 추종세력을 중용했다. 그러나 중종의 이 선택은 처음부터 모순적이었다. 집권 초반에 부도덕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신세력의 영향력을

97) 『練藜室記述』 卷7, 「中宗朝 故事本末」 〈己卯士禍〉.
98) 『練藜室記述』 卷7, 「中宗朝 故事本末」 〈己卯士禍〉.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림의 도덕론이 필요했다. 그리고 도덕론을 앞세워 권력을 교정하려는 사림의 시도는 결국 왕권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중종은 호생지덕을 갖춘 제왕의 도리가 아니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수호를 위해서 조광조의 처형을 단행했던 것이다.

기묘사화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화 주동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남곤과 심정 등이 신진사류로부터 그 행위의 이중성 때문에 계속 소외를 받고 있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상호 교유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남곤 등은 소외감에 대한 분한을 품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99] 그리하여 무엇인가 문제삼을 것을 찾아 몰두하고 있던 중, 당시 시정 사람들이 대사헌 조광조의 공정한 법 집행에 감동하여 '우리 상전이 오셨다'고 감격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온 나라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유언비어로써 임금의 심리를 동요시키는 본격적인 모의를 시도했던 것이다.

중종이 기묘사화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증거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사건 이전에 중종은 '宗社의 大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곤 등과 모여 조광조 등을 죄주기로 협의하였음을 직접 인정한 바 있다.[100] 임금과 남곤 등이 密謀 후 기밀이 누설되어 선비들을 내칠 계획이 성취되지 못할까 염려했었다는 말은 또한 사전 준비가 철저했음을 의미한다.[101] 또 남곤 등의 모의에 중종이 몇 차례 밀지를 내려 사실상 거사를 직접 명하는 것이라든가 사화가 일어나던 날 밤 열어서는 안 되는 神武門이 아닌 延秋門을 열고 들어오라는 지시도 중종이 직접 내렸다.[102] 사화가 일어난 당일 밤 모든 신료들의 행동이 중종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사화 당시 사신들이 사건 전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중종에게서 직접 그 시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는 점,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는 조정 논의 과정에서 남곤도 조광조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만류했으나 죄는 임금이 결정내리는 것이라면서 "조광조는 죽

99) 「栗谷全書」 卷28, 「經筵日記」.
100) 「中宗實錄」 卷37, 14年 11月 18日(戊申).
101) 「中宗實錄」 卷37, 14年 12月 4日(甲子).
102) 「中宗實錄」 卷37, 14年 12月 16日(丙子).

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처형해야 한다는 견해를 중종이 끝까지 바꾸지 않았던 점도 그렇다.[103]

중종 말년에 조광조를 신원하라는 격렬한 상소가 끊어지지 않았으나, 중종은 세상을 떠날 무렵 때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광조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기묘사화가 거의 중종에 의해 주도되고 남곤 등이 앞장선 참화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104]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광조는 연산군 치세의 폐정과 제도문란, 민생피폐를 시정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훈구세력들과 중종에 의해 그의 개혁정치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조광조가 추진한 정치적 개혁은 현실정치를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적극적인 정치 방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103) 「中宗實錄」 卷37, 14年 12月 16日(丙子).
104) 「中宗實錄」 卷102, 39年 4月 13日(辛巳).

Ⅵ. 맺음말

지금까지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의 사상적 기반, 개혁정치의 과제와 실천, 그리고 그에 따른 성격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반정 이후 중종은 연산군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신세력의 영향력으로 왕권이 매우 취약하여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다. 부도덕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신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약점인 사림의 도덕론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조광조가 정치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광조의 정치활동은 그의 사상에 입각하여 그 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현실정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인정이며 덕치인 지치를 강조하고, 이러한 이상사회는 천인합일을 달성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현실사회의 모순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실정치에서 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개혁정치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반드시 덕을 배양하여 현군이 되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경과 인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군주의 끊임없는 수양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와 더불어 조정운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신과 대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조광조는 정계진출 이후 개혁정치를 시행하게 된다. 그가 개혁정치를 시행함에 있어 고수했던 기본입장은 지치의 효과는 빨리 기대할 수 없지만, 지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변통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기는 놓치기 쉽고 기회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혁의 신속성도 강조하였다.

그의 개혁정치를 이 글에서는 정국의 파란을 일으켰던 주요 쟁점들인 소격서

혁파, 현량과 실시, 정국공신 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격서 혁파는 정치의 이념적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이다. 도덕적 원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정신적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어렵고, 이상정치의 실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중종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장했던 것이다.

현량과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판단의 작용으로 추진된 것이다. 중종 10년이 지나도록 지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신하들의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안의 도덕적 정당성 때문에 기묘사화 전까지 어느 누구도 현량과의 실시에 담긴 조광조의 정치적 의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다.

마지막 작업인 정국공신 개정은 의리와 사리의 분변 문제로 파악하여 강조하였다. 정국공신들 중에는 상당 수가 연산군대의 총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임금을 시해하고 국가를 찬탈하였던 사리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국공신을 삭훈하라는 중종의 전지가 내려진지 4일 만에 기묘사화가 발생하여 조광조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결과 조광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상반되게 진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했던 훈구세력들과 조광조의 사사에 대하여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냉혹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중종이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조광조는 누구보다 참화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었고, 위기의 본질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연산군 치세의 폐정과 정치문란, 민생피폐 등을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던 훈구세력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훈구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이중성 때문에 교우하지 않으며, 소외되고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국 모반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 정치권력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군주만을 믿고 모든 일을 행하였다. 하지만 중종은 계속되는 모반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과 그들의 부단한 추진력에 보조를 맞추기에는 나태한 면이 많은 임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조광조의 처형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추진한 정치적 개혁이 현실정치를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적극적인 정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16세기 조선왕조가 안고 있던 제반문제를 반영한 그의 사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그는 그 시대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순의 이상정치인 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정치를 펴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정치에서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던 그의 신념이 정치적으로 재평가되어 선조 원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광해군 2년에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등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은 조선왕조 유교문화가 독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었고, 그의 개혁은 실패하였지만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 료

『大東野乘』

『栗谷全書』

『靜庵集』

『朝鮮王朝實錄』

『退溪全書』

『(국역)연려실기술』(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1966.

조종업. 『수정재역 정암선생문집』. 경인문화사. 2004.

조선왕조실록CD-ROM간행위원회. 『(국역)조선왕조실록(컴퓨터파일)』. 서울시스템. 1995.

2. 저 서

강주진. 『조정암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979.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금장태. 『조선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우기. 『조선 중기 척신 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준석. 『한국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 Ⅰ · Ⅱ』. 지식산업사. 2005.

류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배종호 외. 『한훤당의 생애와 사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96.

부남철. 『조선 시대 7인의 정치사상』. 사계절출판사. 1996.

유명종. 『한국사상사』. 이문출판사. 2001.

이동준,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한울아카데미, 1997 참고.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병휴. 『조선 전기 기호사림파 연구』. 일조각. 1986.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상성.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심산. 2003.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2000.

이성규 외. 『음애 이자와 기묘사림』. 지식산업사. 2004.

이수건. 『영남 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건 외. 『점필재 김종직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1995.

이수건 외.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종범. 『사림열전』 1. 아침이슬. 2006.

이종호. 『정암 조광조 : 영원한 개혁의 순교자』. 일지사. 1999.

이태진. 『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이태진. 『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이태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003.

정두희. 『조광조 : 실천적 지식인의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아카넷. 2001.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6.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2.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1986.

황의동. 『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 1995.

3. 논 문

김광철. 「정암 조광조의 정치사상」 『부산사학』 7. 1983.

김돈. 「중종대 언관의 성격변화와 사림」 『한국사론』 10. 1984.

김범. 「조선 중종대의 역사상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사학보』 17. 2004.

김범. 「조선 성종대의 왕권과 정국운영」 『사총』 61. 2005.

김범. 「조선 연산군대의 왕권과 정국운영」 『대동문화연구』 53. 2006.

김용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상적 함의」 『동방학지』 124. 2004.

김정신. 「조선전기 사림의 '공'의식과 군신공치론」 『학림』 21. 2000.

김항수.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 『한국사론』 7. 1981.

송웅섭. 「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 『한국사론』 45. 2001.

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옮김). 「1519년의 현량과」 『역사와 경계』 42. 2002.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25. 1997.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 현량과 연구 첨보」 『대구사학』 12·13. 1977.

이상은. 「조선조 국론에 반영된 의리정신」, 『사문논총』 1집, 사문학회, 1973

이태진. 「사림파의 향약보급운동」 『한국문화』 4. 1983.

정두희. 「기묘사화와 조광조」 『역사학보』 146. 역사학회. 1995.

정두희. 「소격서 폐지 논쟁에 나타난 조광조와 중종의 대립」 『진단학보』 88. 1999.

정두희. 「조광조의 복권과정과 현량과 문제」 『한국사상사학』 16. 2001.

조승호.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연구」 『강원사학』 6. 1990.

최승희. 「조선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 『한국학논집』 1. 1980.

최이돈. 「16세기 사림파의 천거제 강화운동」 『한국학보』 15. 1989.